

김재영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First Title
T: 703-256-3434 / F: 703-256-3222

이정화
Retirement Planning Specialist
www.jeunghwayi.com
www.AXAonline.com
Tel: 703-593-5447
chan.ding@axa-advisors.com

중일일보

<제2397호> dc.koreadaily.com 전화: 703-281-9660(VA), 410-461-4058(MD)

The Korea Daily

“생사람 잡은 DC경찰 못참아” 애난데일 한인 법정소송 제기

이종열씨 절도범 몰려 구치소 수감 '치욕'



이종열 씨(왼쪽)가 18일 회견을 갖고 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소송을 담당할 아태법률센터의 나디아 피로즈비 변호사.

〈속보〉영문도 모른채 경찰에 체포돼 4일 넘게 구치소에 수감됐다 무혐의로 풀려난 한인이 경찰을 상대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착수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본지 1월 31일자 A-1면 보도〉 애난데일에 거주하는 이종열씨는 18일 워싱턴DC 소재 중국계 비영리단체인 OCA 회의실에서 아태계 법률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기자회견에서 “금년 초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버지니아 경찰에 체포돼 4일간 구치소에 수감됐다 DC 경찰로 옮겨져 4시간 여만에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아들 앞에서 수감을 차고 끌려갔던 그 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며 “경찰들은 통역자를 구해 달라는 내 요구를 무시했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씨를 도와 소송을 준비중인 아태계 법률센터는 DC 경찰국이 소수계 언어 통역자 제공 및 번역 서류 열람을 의무화 한 ‘언어 이용권리법(Language Access Act)’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이날 ABC7과의 인터뷰에서 언어 이용권리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나디아 피로즈비 아태법률센

터 담당변호사는 “이 법에 의하면 영어가 서툰 주민들이 관공서를 찾았을 때 통역자를 제공하거나 해당 언어로 번역된 서류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씨의 사건을 계기로 DC 경찰국은 언어 이용권리법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태법률센터는 이에 따라 이씨 소송과 함께 DC 경찰을 상대로 법률 교육 강화와 경찰서내 홍보안내문 부착 의무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 19일 DC경찰의 요청으로 페어팩스 경찰에 체포될 당시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DC의 한 주류판매소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2급 절도 혐의였다.
그가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4일 간 머무는 동안 이씨의 가족은 면회와 전화 연락, 보석을 시도했으나 구치소측으로부터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씨는 체포된지 4일만에 워싱턴 DC로 이송됐고 4시간 뒤에 ‘불기소 선포’ 결정으로 풀려났다. 104시간 동안 구금당한 끝에 석방된 이씨는 DC 경찰로부터 “체포 사실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확인서 한 장만 받았을 뿐이다. **홍일범 기자**

영주권자

국토안보부, 내년 1월

내년 1월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영주권자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열손가락 지문과 사진을 찍어야 한다.
국토안보부(DHS)는 18일 영주권자 지문 채취 등을 포함, 미 방문객들에 대한 지문채취 범위를 확...
공공안...
강화...
DH...
따라...
해 마...
캐나다

연말 음주



들뜨기 쉬운 연말을 맞아 음주 운전자가 늘 가운데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19일(금) 버지

‘5400만불 바지 정진남씨 또

잃어버린 바지 한벌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5400만달러 바지 소송에서 정진남(사진)씨가 결국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웃었다.
어슨이 원심대 재판장 탁소가 서비스 기에

18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에